

대한 양계협회

소식

농민단체장 회의 및 장관초청 간담회 개최

배합사료부가세 영세율적용 등 현안문제 토의



본회를 비롯한 각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농민단체 협의회는 가을 정기국회 개원과 당면한 농정현안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9일 농단협 사무실에서 농민단체장 회의 및 농림수산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회에서는 최준구 회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박승봉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 및 간담회에서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해야할 과제인 '95쌀수매 대책, WTO이행법 시행 검증, 7대 농정과제,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공업무의 농림수산부 일원화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되었다.

기타사항으로 민자당 대표와의 간담회 건과 '95농민의 날행사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

'96양계업 자조금사업 보조금 신청

자체조성 2억원 목표

본회는 양계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 '96년 양계업 자조금사업 보조금을 농림수산부에 신청했다.

자체 조성금 2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 '96년도 자조금 사업은 전양계인 참여 유도, 자율적 자조금납부 원칙, 참여농가 의견 사업 추진에 최대 반영, '96년도 소비촉진홍보사업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치중한다는 방침으로 농림수산부에 신청한 보조금은 1억원에 해당한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가금티푸스 확산으로 난가상승

9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적으로 가금티푸스가 농가에 큰 피해를 주며 초강세의 난가를 형성시키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현안문제로 대두된 가금티푸스 확산 방지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한편, 전국채란인 대회는 11월 10~11일 양 일간에 걸쳐 양평에 위치한 대명콘도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병아리 부족현상으로 가격 상승세

9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질병과 홍수피해로 타격을 입은 농가들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산란계 보다는 피해가 적은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병아리 공급이 부족하여 입추가 지연 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병아리값은 500원이 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10월부터 병아리 생산이 늘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금년말 불황이 예고되고 있어 사육농가들의 입추를 자제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국육계인 대회를 오는 11월 8~9일 양일간에 걸쳐 양평에 위치한 대명콘도에서 생산성 향상과 계열화 등 육계인의 나아갈 방향을 중심으로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종계인 대회 11월 17~18일 개최키로

9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계열업체에서 종계의 수정률과 산란율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병아리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며 육계의 경우 콜레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고 있으나 병아리가 많아지는 10월을 감안할 때 생산감축 등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매년 원종계 농장에서 종계·부화인들이 모임의 자리를 마련해 오던 것을 금년에는 11월 17~18일 양평의 대명콘도에서 종계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양계산업 시찰단 파견

중국 제9차 가금무역박람회 참관



본회는 중국 양계산업의 현주소를 파악기 위해 중국양계산업 시찰단(단장 최준구)을 17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9월 13~20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중국 양계산업 시찰을 마쳤다.

이번 시찰단은 중국 제9차 가금무역박람회 참관, 연변농학원 및 부속농장 방문, 미원사료 북경공장 및 부속농장 등을 방문하여 중국양계산업의 현재 위치와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현실을 비교 분석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시찰내용은 11월호 게재 예정)